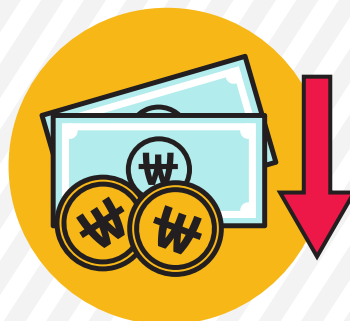


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하는  
**실손의료보험**이  
더욱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될 수 있도록  
**2021년 7월**, 새롭게 태어납니다.



의료이용량에 따라  
보험료를 형평에 맞게 부담하도록  
보장체계가 개편됩니다.



소비자의  
실손보험료  
부담은 줄이고,



기존 가입자도  
새로운 실손의료보험으로  
쉽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.